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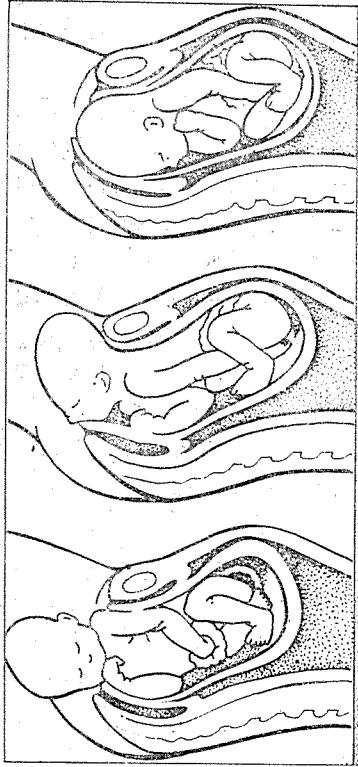
分 娩 의 경 과



2. 분만제2기

자궁구가 직경 10센치미터 까지 열리고 애기를 낳을 때까지로 평균 1-2시간 늦으면 4시간 정도까지를 정상범위로 되어있다. 자궁구가 열리고 애기 머리가 산도의 가운데로 내려왔으면 직장 합문을 압박하기 때문에 변의(便意)가 생기며 자연히 눕고 싶게 된다.

초산인 임부는 이때쯤 분만실에 옮겨간다. 산도를 깨끗이 하고 소독한 천을 깔고 방광에 고인 소변을 빼낸다. 준비가 되면은 다음은 산부의 몸가짐이다. 진동에 맞추어 변을 보는 기분으로 될 수 있는데로 환승에 길게 힘을 주면 애기는 잘 내려 안는다. 진동이 자자지면 전신의 힘을 다해 천천히 심호흡을 해야 한다. 이 시기는 태아로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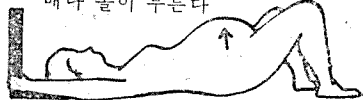


힘주는 법 (좋은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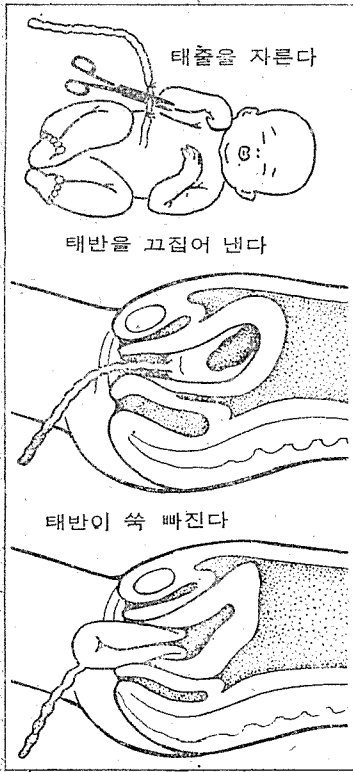


힘주는 법 (나쁜 자세)

배나 불이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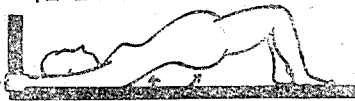
分娩제3기의 태아의 움직임:



나쁜 힘주기 자세②



나쁜 힘주기 자세③



제일 고통스러운 때이므로 심호흡을 하여 태아에 충분한 산소를 보내줄 필요가 있다. 몸가짐 즉 힘주는 법이 좋아도 진통이 없으면 아무리 힘을 주어도 그 효과는 반감한다. 자궁의 수축이 시작되면 천천히 심호흡을 하여 숨을 드러마신 상태로 힘을 준다. 머리가 나오는 순간 잠시 힘을 멈추어야 하지만 그 타이밍은 조산원이 가르쳐준다. 힘을 빼고 하하 하며 얇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조산원이 편하게 머리를 만들시킨다. 어깨가 나오면 다시 한번 경하게 힘을 주면 그것으로 끝난다. 조산원은 아기의 입안의 양수나 분비물을 닦아내고 호흡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몸을 깨끗이 닦아주고 태출을 자른다. 그 간에 아기의 이상 유무를 살핀다.

3. 분만 제3기

아기를 낳고 태반이 나올 때까지를 분만 제3기라 한다. 아기를 낳은 후 수분이 지나면 자궁수축이 다시 시작된다. 대개 10분에서 15분 내에 태반이 나온다. 태반이 나온 후 질벽이나 외음부에 상처를 찾아내고 열상이 있다던가 아기낳을 때 회음 절개를 행하였을 시는 이를 봉합한다. 봉합이 끝나면 외음부를 깨끗이 닦고 소독하고 소독한 면을 대고 한참동안 분만실에서 출혈 유무를 살핀다. <이 영 속>